

시나리오 (3고)

행복 (가제)

[등장인물]

한영수 : 남. 병이 들어 서울을 떠난다.

서은희 : 여. 요양원에서 영수가 만나는 여자.

홍수연 : 여. 영수의 여자친구.

1. 나이트클럽 화장실. 밤. 실내.

화면이 밝아지면 숨을 몰아쉬는 한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영수다.
영수는 세면대의 거울로 자신의 취한 모습을 보고 있다.
헛구역질을 하는 영수.
괴로운 모습이다.
다시 거울을 보는 영수.
영수 눈을 감아본다.
눈물이 흐른다.
홀의 음악이 멀리 들려온다.

2. 나이트클럽 룸 앞. 실내.

무대가 보이는 룸의 문 앞.
깨끗이 세수한 영수가 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미소를 지어보는 영수.
룸 안으로 들어간다.

3. 룸 안. 실내.

룸으로 들어오는 영수.
동준이 앞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영수는 방으로 돌아오자마자 바로 동준에게 합류한다.
마이크를 같이 들고 신나게 노는 영수와 동준.

노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와 앉는 영수.
동준은 다음 노래를 시작한다.
영수는 옆의 여자에게 폭탄주를 만들어준다.
20대 초반의 귀여운 여자, 미영이다.
미영에게 잔을 건네는 영수.

영수 미영의 귀에 대고 속삭인다.
노래를 하던 동준은 가주부분이 되자 마이크를 잡은 채로 말한다.

영수 알았다고 술잔을 든다.
폭탄주를 들이키는 영수.
동준이 울먹울먹하자 동준의 파트너가 이야기한다.

파트너 왜 이래... 오빠 이러는 거 오바야...

4. 나이트 문 앞. 새벽. 외부.

하늘이 밝아오고 있다.
동준과 그의 파트너가 먼저 택시를 타고 간다.
동준을 보낸 영수는 나이트 입구 근처 화단에 앉는다.
영수 앞을 서성거리다 옆에 앉는 미영. 잠시 말없는 두 사람.
영수 미영을 보고 피식 웃는다.

영수 가라... 담에 보구...
미영 담에 언제?
영수 언제든... 약속!

영수가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일어서는 미영.

미영 오빠 귀여워.

미영은 손을 흔들며 걸어간다.
혼자 남은 영수.
담배를 한대 피운다.

5. 한강의 강변도로. 일출.

달리는 자동차의 시점으로 강변의 경치가 보인다.
아직은 시원스레 달리는 차들. 헤드라이트를 켰거나, 혹은 미등만 켜고 달린다.
날이 밝아오면서, 멀리 아파트들, 다리들, 고가들이 보인다.
붉은 해가 뜬다.
하늘은 맑다.

#. 타이틀

행복(가제)

6. 수연의 집. 아침

영수가 번호 키를 누르지만 문은 열리지 않는다.
벨을 누르고 기다려도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다.
문을 쾅쾅 두드리며 수연을 부른다.
수연이 자다 깨 얼굴로 문을 연다.

수연 너 술 마셨니? 미쳤구나.
영수 마지막으로 한잔 마셨다.
수연 ... 마지막이라 그런 게 한 두 번이야?

7. 수연의 집 안.

영수와 수연 소파에 앉아있다

영수 핸드폰을 내민다.

영수 한동안 말이 없다.

영수 ... 결혼은 하지 마라. 나 복잡한 거 싫다.
수연 ...

영수 말이 없다가 갑자기 일어나 나간다.

8. 승강기 앞

승강기를 기다리는 영수.

수연 약 꾸러미를 가지고 나와 영수에게 준다. 영수는 약을 받고 등을 돌린다.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수연.

수연 한 번 안아 봐도 되니?

영수는 돌아보지 않는다.

수연 다가와 영수를 안아준다. 영수는 뺏뺏이 서 있다.

영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수연을 밀치고 탄다. 돌아보지 않는 영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9. 목욕탕. 수면실.

긴 수건을 덮고 누워있는 영수.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거린다.

주위를 둘러보는 영수.

넓은 수면실이 텅 비어있다. 아무도 없다.

수건을 뒤집어쓰는 영수.

잠시 후 영수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온다.

10. 바 앞

임대 포스터가 붙어있다. 영수 다가와 찢는다.

11. 바 안

낮 시간의 바는 텅 비어있다. 햇빛이 잘 들어온다.

황재근

웨이터들이 가짜 병을 던지며 쟁쟁한 쇼 연습을 하고 있다.
테이블엔 영수와 동준이 앉아있다.

영수 ... 인수해줘서 고마워.
동준 내가 찝찝해. 돈 빌려주고 가게 뺏는 거 같아서...

동준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내민다.

동준 써라.
영수 됐어.
동준 다음에 돌아와서 갚어. 안 갚어도 되고.
영수 ... 정 주고 싶으면 니가 내 통장에 조금씩 네줘...
동준 근데 꼭 가야 되냐? 여기서 치료받는 게 낫지 않냐?
영수 여기선 돈도 없고, 있을 테도 없고... 술도 못 끓고...
 나 생각보다 심각해...
동준 ...
영수 ... 수연이한테는 나 가는데 얘기하지 마라. 쪽 팔린다.
동준 알았어.
영수 넌 맨날 하잖아.
동준 알았다니까...

가게를 둘러보는 영수.

영수 동준아, 나 망한 거 맞지?

동준 고개를 끄덕인다.

동준 졸딱...

영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씁쓸하게 웃는 두 사람.

12. 어머니의 집. 마루. 낮.

작은 연립주택이다.

가구가 빼곡히 들어차 있는, TV에서 소파까지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마루.
구석엔 영수가 사온 의료기의 박스가 풀어져있다.
낡은 선풍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간다.
TV에선 영수가 사온 의료기의 광고가 나온다.

어머니 이게 좋긴 좋나보다.....

영수는 어머니 무릎에 머리를 베고 누워 있다.

어머니는 영수의 귀를 파주고 있다.

영수 형은 자주 와?

어머니 응... 어제 왔으면 만났을 텐데...

영수

나 유학 가.. 대학 좀 가볼려고...

한 이년 걸릴 거 같애..

어머니 영수야, 너 지금 얼마 만에 온 줄 아니?

영수 ...

어머니 1년 반 만이야...

영수 벌써 그렇게나 됐나...

어머니 너 또 어디 간다 어쩐다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번씩 들려

그럼 됐어...

어머니 영수의 얼굴을 만진다.

영수는 고개를 돌린다.

왠지 눈물이 나려한다.

13. 기차 안. 낮.

기차가 서울의 다리를 건너간다.

영수 눈을 감는다.

14. 버스 안

뜨거운 햇살이 나무사이로 반짝인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 여자. 은희다.

열어놓은 창문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은희는 머리가 날리는 걸 손으로 잡고 창밖을 본다.

버스 서고 영수가 탄다.

짐을 들고 땀을 닦는 영수는 안색이 좋지 않다.

영수는 은희 뒷자리에 앉는다.

시골길을 달리는 버스.

영수, 문을 활짝 연다.
바람을 맞는 두 사람.

15. 가게 앞

버스가 며나면 두 사람이 서있다.
주위를 둘러보는 영수. 은희는 가게로 들어간다.

16. 가게 안

은희는 물건을 골라 계산을 하고 있다.
가게로 들어오는 영수.
영수는 소주 한 병을 들고 계산을 하러 온다.
은희 영수를 쳐다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나간다.
영수는 가게 아줌마에게 돈을 건넨다.

영수 [희망의 집]이라고... 여기서 얼마나 돼요?
아줌마 걸어서? (영수를 훑어보며) 한 10분 걸릴 텐데...
영수 ... 여기 택시 불러 주실 수 있죠?
아줌마 부르면 천원 더 줘야 하는데...

17. 가게 앞 평상. 낮.

영수가 평상에 앉아있다.
영수 앞에는 소주병이 놓여 있다.
소주를 종이컵에 한잔 따르고는 한동안 쳐다보는 영수.
잔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킨다.
나머지 소주를 풀숲에 따라버리는 영수.
주머니의 담배도 꺼내서 버린다.
잠시 망설이는 영수.
영수는 풀숲에 버린 담뱃갑을 찾아 한 개비를 꺼낸다.

18. 산길. 낮.

영수가 택시를 타고 가다보면 은희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그냥 횡 지나가는 택시.
먼지가 난다.

기침을 하는 은희.

19. 택시 안

영수의 시점으로 요양원 팻말이 보인다.

[희망의 집]

영수 팻말을 본다.

20. 요양원 사무실. 낮.

사무실 벽의 도표를 유심히 살펴보는 영수.

도표에는 요양원에서 묵고 있는 환자들의 나이, 이름, 병명 등이 기록되어 있다.

대부분 40-50대인 환자들. 영수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진다.

원장 아줌마는 영수의 병원 진료기록을 보고 있다.

원장 아줌마가 영수에게 입원서류를 내민다.

아줌마 이것 좀 기재해주세요...

영수가 서류를 보는데, 은희가 들어온다.

아줌마 은희씨, 인사해. 여기 새로 오신 분이야.

영수와 은희가 인사를 한다.

아줌마 한영수씨는 한동안 무염식 하셔야 될 거 같아.

식단을 따로 짜야 되겠는데?

은희 네...

21. 요양원 복도. 낮.

영수와 은희가 걸어간다.

은희가 앞서고, 영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방문 앞에 서는 은희와 영수.

은희 방문을 연다.

은희 저쪽 비어있는 쪽을 쓰시면 되거든요.

영수 아까 만났죠?

은희 아, 네... 그런데 여기서는 술 담배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은희는 돌아서 간다.

22. 영수의 방. 낮.

큰 가방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영수.
바퀴 달린 웃걸이, 앉은뱅이책상, 낡은 웃장 하나가 보인다.
책상 위에는 건강관리에 대한 책들과 낡은 라디오, 편지지, 볼펜 등이 놓여있다.
책상으로 가서 라디오를 켜 보는 영수.
다이얼을 돌리며 이리저리 주파수를 맞춰본다. 전파가 잡히는 방송이 별로 없다.
교통방송만 잡힌다. 방송에서 리포터가 서울 시내 도로 상황을 빠르게 재잘댄다.
영수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힘든 듯 앉는다.
짐을 벼고 눕는다.

23. 영수의 방. 밤.

잠들어 있던 영수는 가위에 눌린 듯 움찔하더니 눈을 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다. 시간이 꽤 지난 듯하다.
방 안 형광등이 켜져 있는 걸 보니 밤인 것 같다.
라디오 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린다.
일어나 앉으면서 보니 책상 앞에 웬 남자가 앉아서 뭔가를 쓰고 있는 게 보인다.
영수의 기척에 돌아보는 남자. 같은 방 룸메이트인 석구다.
50대 초반 쯤으로 보인다.

석구 언제 오셨어? 나 이 방 쓰는 최석구요...

영거주춤한 자세로 일어나 인사를 하는 영수.

영수 저는 한영습니다.
석구 근데 담배 냄새나대... 담배 좀 줘 봐요.

영수 영겁결에 지갑에 넣어 놓은 담배 한가치를 준다.
석구 담배를 받아 부러트려 휴지통에 넣는다.
영수 황당하게 쳐다본다.

석구 나 폐암이야...

당황한 영수.

영수 (엉겁결에) 전 간경변인데요...
석구 담배 절대 피우지 마쇼.. 독약이야.. 독약...

어색하게 고개를 끄떡이는 영수.

24. 방. 밤.

석구가 코를 골고 있다.
코를 골다가 숨이 턱 막히는 석구.
잠시 후 다시 코를 골기 시작한다.
영수는 잠이 안 온다.
벽 쪽으로 돌아누워서 벽지의 무늬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고 또 돌아오고 한다.
문 쪽에서 똑똑 노크소리가 들린다.

25. 부엌. 밤.

몇몇 아저씨들이 모여서 라면을 먹고 있다.
어두컴컴한 부엌.
땀을 흘리며 김치를 곁들여 맛있게 라면을 먹는 사람들...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저씨도 있다.

아저씨1 모르겠다... 먹고 죽자...
아저씨2 (아저씨1에게) 아저씨는 신부전증이면서 좀 적당히 먹어...
아저씨1 (노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영수는 분위기에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

아저씨1 한자해

아저씨는 한 쪽에서 소주를 꺼내 영수에게 권한다.
영수 엉겁결에 술을 받아 그냥 내려놓는다.

아저씨1 왜... 술 못 하나?
영수 ...

소주가 담긴 종이컵을 내려다보는 영수.

아저씨1 못하면 이리 줘... 아까운 걸...

황재근

아저씨를 쳐다보는 영수.
병을 가져다가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채운다.
한 번에 주욱 들이키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영수.

아저씨1 어이 간경변... 술 좀 하는데...
영수 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목례를 하고 나가는 영수.

26. 로비. 밤.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있는 영수.
전화기 건너편에서 여보세요...하는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는 영수.

수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영수 ...
수연 안 들리니까 다시 하세요...
(멀어지는 목소리로) 야... 052로 시작하는 테가 어디니?

전화를 끊는 수연.
수화기를 내려놓는 영수.
텅 빈 로비... 전화를 끊고 나니 사방이 조용하다.

27. 방. 아침.

피곤한 얼굴로 잠이 든 영수.
석구가 영수를 깨운다.
눈이 안 떠지는 영수.

28. 요양원 마당. 아침.

마당에 나와 있는 요양원 사람들.
부스스한 모습의 영수도 보인다.
원장 아줌마가 앞에 서 있다.

원장 오늘 아침도 다들 무사히 만났네요.
반갑게 인사를 나눕시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영수는 어색하다.

체조를 시작하는 사람들.
쉬운 동작인데도 잘 따라하지 못하는 영수.
피식 웃는 소리가 들린다.
주위를 둘러보는 영수.
뒤편에서 은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체조를 하고 있다.

29. 요양원 식당. 아침.

배식구 쪽에 줄을 서있는 요양원 사람들.
영수의 차례가 된다.
주방 쪽에 있던 은희는 영수에게 따로 준비해놓은 식사를 건넨다.

30. 요양원 식당, 잠시 후.

영수가 식사를 하고 있다.
영수는 잡곡밥과 간이 되지 않은 푸른 채소들을 먹고 있다.
먹기가 힘든지 천천히 쟁어 먹는 영수.
구역질이 난다.
영수의 앞에 컵을 내려놓는 은희.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은희.
영수는 무즙을 좀 마신다.
역시 맛은 없다.
은희 쪽을 바라보는 영수.
은희는 무릎을 당겨 가슴에 바짝 붙인 채 식사를 하고 있다.

31. 산길. 오후.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내려오는 영수.

32. 가게 앞 평상. 해질녘.

영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앞의 평상에 앉아있다.

컵라면과 김치를 먹은 영수.

다 먹고 나서 기분 좋게 주위의 경치를 바라보던 영수가 갑자기 컵라면과 김치를
감춘다.

잠시 후 은희가 온다.

영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가게로 들어가는 은희.

33. 산길. 낮.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영수. 저 앞에 은희가 걸어가는 게 보인다.

은희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 몇 개를 들고 천천히 걷고 있다.

영수는 느리게 걷는 은희를 금방 따라잡는다.

영수 들어줄까요?

은희 예? 팬창은데...

영수 ...이리 주세요.

영수는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성큼성큼 걸어간다.

비닐봉지는 생각보다 무겁다.

빨리 내려놓고 싶은 생각에 자기도 모르게 빠른 걸음으로 뒤통대며 걷는 영수.

그러다 은희가 너무 뒤에 쳐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걸음속도를 늦춘다.

이런 영수의 모습을 은희가 뒤에서 보고 웃는다.

영수는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은희가 오는 걸 기다린다.

영수 내가 그렇게 웃겨요?

은희 그게 아니라요...

영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좋아요?

웃는 은희. 영수도 웃는다.

영수 근데 밥 먹을 때 왜 그렇게 무릎을 앓구 있어요?

은희 아파서요...

영수 무릎이요?

은희 아뇨... 폐요...

꾸욱 누르고 있으면 좀 덜 아픈 거 같아요...

영수 많이 아파요?

은희 한 40%정도 남았다는테 아직은 쓸만해요..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좋아졌구요.
영수 조심해야겠네.
은희 대신 달리면 그대로 (죽는시늉)
영수 나두 있는데. 술 마시면 그대로..(죽는시늉)

웃는 영수. 은희도 웃음이 난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두 사람.

34. 요양원 사무실. 낮.

서랍에서 보험카드 뭉치를 꺼내는 은희.
은희 그 중 하나를 꺼 본다. 영수의 보험카드다.
기재사항을 유심히 살피는 은희.

35. 병원 진료실. 낮.

영수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다.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는 영수.

의사 술 담배 하지 말고 꾸준히 약 잘 먹어요...
간수치는 좀 떨어졌어...
영수 얼마나 더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의사 몇 년 걸릴지 모르지...
수치가 떨어졌다구 간이 좋아진 건가?
간경변증이란 게 완치가 없어.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교회 안 다니나?

36. 봉고차 안. 낮.

환자들이 하나 둘 씩 차 안에 올라탄다.
은희는 자신의 옆자리에 짐을 옮겨놓았다.
영수가 차에 타려하자 짐을 치우는 은희.
영수는 그냥 뒤쪽의 자리로 가서 앉는다.
영수는 표정이 좋지 않다.
돌아보면 옆자리에 신부전증 아저씨가 앉아있다.

달리고 있는 차 안.

창밖으로 푸른 산과 들이 펼쳐진다.
갑자기 이상한 기척이 들린다.
보면 영수 앞 쪽에 앉은 석구가 흐느끼고 있다.
조용해지는 차 안.
아무도 설불리 말을 꺼내지 못한다.

아저씨1 (영수를 보고) 그래도 그 때 그 라면 진짜 맛있었지...

대꾸가 없는 영수.

37. 영수 방. 밤.

석구의 옆에 누워있는 영수.
석구는 자고 있는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불안한 듯 계속 잠자리에서 뒤척이던 영수, 벌떡 일어난다.
가방과 옷 주머니를 뒤진다.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영수.

38. 가게 앞. 밤.

가게 문이 닫혀있다.

가게 앞 도로에서 차를 잡는 영수. 차들이 몇 대 지나가고 나서 택시가 선다.

영수 아저씨 혹시 담배 있으면 파실래요?

기사아저씨는 영수를 잠시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린다.
잠시 쫓아가다가 멈추는 영수.
허탈한 모습으로 서 있다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다.
텅 빈 밤길에 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영수.
땅바닥에 주저앉는다.

39. 요양원 사무실. 낮.

사무실 정돈을 하고 있는 은희.
창밖으로 영수가 보인다.

영수는 화단 균처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황재근

영수의 모습을 유심히 보는 은희.

40. 요양원 마당

은희가 외출복을 입고 마당으로 걸어 나온다.
영수에게 다가가는 은희.

41. 시장. 낮.

같이 읍내에 나온 영수와 은희.
은희는 야채를 고르고, 영수는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다.
야채를 사고 영수에게 슬그머니 내미는 은희.
영수는 은희가 준 야채를 장바구니에 넣는다.
은희는 걸어가며 미안한 듯 영수를 흘끔 본다.

42. 중국집

영수와 은희가 중국집에 앉아 있다.
은희의 옆에는 장을 본 바구니가 놓여 있다.
자장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 영수.

은희도 젓가락을 듣다.
기시의 유통을 떠나 시작하다

은희가 우동 그릇을 들고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간다.
무스 이이가 심어 보는 연속

영수 왜 그래요?
으희 아뇨

43 산길 날

한적한 산길, 은희와 영수가 걷고 있다.

은희	근데 영수씨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네요...
영수	그러게요...
	... 저 고아예요...
은희	미안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영수	뭐가요?
은희	아니, 첫날 혼자 오셨잖아요.
	그런 경우 드물거든요.
	동병상련이네...

영수는 은희를 의아하게 쳐다본다.

은희 저도 고아 비슷하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은희의 진지한 반응에 당황하는 영수.

영수 저... 미안해요...
농담이었어요.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은희 화가 난 듯 앞으로 걸어간다.

쫓아가는 영수.

은희 결음을 멈추고 돌아선다.

은희 그런 걸로 농담하는 거 아녜요.
잘못했다고 하세요.
영수 ... 잘못했어요.

은희 영수를 본다.

미안한 표정의 영수.

다시 걷는 은희와 영수.

조금 가파른 부분이라서 은희가 힘든 숨소리를 낸다.

잠시 서서 가슴을 꾹 누르는 은희.

영수 힘들어요?

은희 ...왜요.. 업어줄래요?

영수

아님 말구요.

황재근

길가의 바위에 앉는 은희.
영수도 건너편에 앉아서 숨을 고른다.
살짝 부는 바람에 사스락, 나뭇잎들이 움직인다.
조용한 숲 속.
은희와 영수의 시선이 마주친다.

영수 근데... 아까 음식점에서 왜 그랬어요.
은희 얘기해줘야 되나...
 국물에 바퀴벌레가 있드라구요
영수 그걸 왜 말을 안 해요?
은희 영수씨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요.

영수 은희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바위에서 일어나는 은희.
영수도 따라 일어난다.

은희 ... 첨이에요.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말하면서 걸으니까 쭈 힘드네...

영수가 은희에게 손을 내민다.
은희 고개를 젓는다.
영수 다시 걷기 시작하면 영수의 옷깃을 살그머니 잡는 은희.
천천히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 두 사람.

44. 밭. 낮.

밭에서 약초를 심던 영수는 밭에서 나와 나무그늘로 걸어온다.
힘든지 나무그늘에서 쉬는 영수.
듬성듬성 들꽃들이 피어있다.

잠시 후
누워있는데 석구가 불쑥 다가온다.
산에서 방금 딴듯한 들꽃을 준다.

석구 담배 있나? 줘봐.
영수 싫은데요...
석구 줘봐. 나두 한대 피게.
영수 ...
석구 진짜루...

영수 ...
석구 내 라디오 즐게... 담배랑 바꾸자.

영수는 지갑사이에 한가지 꺼놓았던 담배를 꺼내서 준다.
담배 피우는 석구.

석구 자네는 피우지마...
영수 ... 아저씨... 갑자기 왜 피세요?
석구 올라가봐.. 좋아. 꽃이 좋아...
영수 ...

영수 담배 피는 아저씨를 바라본다.

45. 방 안. 낮.

영수는 자기 짐을 정리한다.
지갑을 여는 영수. 잡동사니들이 있다:
신용카드 영수증, 툴게이트 영수증, 시한이 지난 쿠폰, 누군지 모르는 명함들...
죽죽 찢는 영수.
트렁크 안의 짐들도 정리한다.
그러다가 수연과 찢은 사진을 본다.
영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사진을 그냥 책갈피에 끼워둔다.

영수는 창가로 간다.
창틀에는 석구에게 받은 꽃이 주스 병에 꽂혀있다.
꽃을 바라보는 영수.
마당을 지나던 은희가 영수를 보고 다가온다.

은희 예쁘네요....
 이거 동산에서 꺾어 오신 거죠?
 내 방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영수 ...
은희 지금 산책 가는 데 같이 가실래요?
영수 ... 아뇨...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은희 무안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뒤돌아간다.

46. 동산. 낮.

은희는 동산에 올라간다.
조그마한 동산에는 부드러운 능선을 타고 들꽃들이 무리지어
흐드러지게 피어있다. 물결을 이루는 꽃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은희.
바람이 불고, 햇살이 좋다.

47. 영수의 방. 오전.

영수가 잠에서 깬다.
햇빛이 들어온다. 늦은 아침이다.
석구의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다.
석구는 벌써 나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영수는 씻으려고 욕실의 문을 연다.
욕실의 문이 열리다가 만다.
뭔가 걸려있다.
영수 힘겹게 문을 열고 욕실로 들어간다.

48. 요양원 복도, 오전.

영수는 허겁지겁 복도로 나온다.
소리를 지르는 영수.

49. 목욕탕, 오전.

사람들 천장에 매달려 있는 석구를 끌어 내린다.
옆에 서있던 은희 침착하게 하나하나 석구의 상태를 체크한다.
목의 둉맥을 쥐어 보고, 호흡도 체크한다.

영수 아저씨... 어떻게 된 거죠?
은희 (영수를 돌아보며) 돌아 가셨어요..

영수, 은희를 본다.

영수는 불안하게 방을 둘러보다가, 석구를 보다가, 희 돌아나간다.
은희, 복도로 나가 앞서 가는 영수의 팔을 잡는다

은희 ...괜찮아요.
영수 ...
은희 제 방에 계세요... 곧 갈게요.

눈시울이 붉어지는 은희.
영수의 손을 꼭 잡고 한손으로 다독인다.

50. 은희 방. 늦은 오후

구석에 앉아있는 영수.
눈을 감는다.
밖에서 앰뷸런스의 소리가 들린다.
창밖을 내다보는 영수.
들것에 눕혀진 석구가 차에 실린다.
영수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51. 산길. 낮.

산을 걸어 내려가는 영수의 모습이 멀리 보인다.
후드득 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

52. 가게 앞. 오후. 비.

비 오는 처마 밑.
평상에 앉아있는 영수.
소주와 술잔을 나란히 놓고 보고만 있다.
은희가 그 앞으로 온다.

영수 ... (은희를 올려다본다)
은희 ... 안 마셔요?
영수 ...

은희가 잔에 술을 따른다.
졸졸졸-,
영수 앞에 잔을 놓아준다.
술을 들이키는 영수.
은희가 다시 잔에 술을 따라준다.

은희	... 맛 좋아요?
영수	...
은희	잠은 잘 오겠네요...
영수	하긴 잠만 잘 와도 어딘데.
은희	... (은희를 물끄러미 보더니) 아무렇지 않아 보여요.
영수	... 네?
은희	... 아프지도 않아 보이구, 힘들지도 않아 보이구...
영수	무섭지도 않아 보이구.
은희	봐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영수	감기만 걸려두 얼마나 무서운데...
은희	앞으로 티내야겠네... 영수씨가 봐줘요.
영수	... (끄덕끄덕)
은희	고마워요.
영수	뭐가요?
은희	... 봐준다니까.
영수	...

은희를 보는 영수.
영수를 살며시 암아주는 은희.

53. 식당, 오후

야채를 다듬고 있는 은희.
옆에서 영수가 슬쩍 슬쩍 돋는다.
지나가던 신부전증 아저씨.

아저씨1	(영수 보고) 그걸 왜 영수씨가 다듬어? 쪽쪽하게...
영수	손 씻었어요.
아저씨1	그래두... 은희씨가 해야 맛있지.
영수	...아 나 옮는 병 아니라니까요...
은희	맞아요. 안 옮아요.
아저씨1	(은희에게) 그걸 어떻게 알어? 만져봤어?
은희	네?

그 때 식당에 들어오는 원장.

원장 은희씨... 시장 좀 가줄래요?
나머진 내가 할께...

은희 네.

은희. 앞치마를 벗고 원장에게 메모를 받는다.
부엌을 나가면서 슬쩍 뒤를 돌아본다.
영수가 천천히 일어난다.

아저씨1 (영수 보며) 영수 씬 왜 나가?
영수 껌껌하다면서요...

54. 읍내 극장 안.

극장 안에서 영화를 보는 영수와 은희.

55. 올라오는 산 길. 해질녘.

걸어 올라오는 두 사람.

영수 왜 이렇게 가깝지...
 다 왔네. 벌써...

피식 웃는 은희.

은희 난요... 남녀가 같이 깜깜한 극장에서 영화 보게 되면은요..
 남들 몰래 손도 잡고 그런 줄 알았어요..

영수는 멀뚱히 은희를 바라본다.

은희 근데 그건 영화에서나 그러나 봐요?
영수

둘은 계속 걸어 올라간다.

영수 난요... 남녀가 이렇게 한적한 산길을 올라가게 되면은요...
 뿐뿐도 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은희는 아무 말 안하다가 웃음을 터뜨린다.
영수도 따라 웃는다.
다시 걷기 시작하는 두 사람.

은희 ... 혹시 걱정할까 봐 얘기하는 건데요.
저 옮는 병 아니에요.

영수는 은희를 바라본다.
잠시 걸어간다.
영수는 은희의 손을 쥐어 자신의 허리를 두르게 한다.
은희를 돌려 세운다.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
나뭇잎 사이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눈을 감는 은희.
영수 은희에게 입을 맞춘다.

56. 식당 바로 옆.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다.
은희가 수저통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영수와 마주친다.
영수는 은희의 팔을 잡아당겨 식당 옆 모퉁이로 끌어당긴다.
둘은 아슬아슬한 뾰뽀를 한다.

57. 식당

은희는 야채를 다듬고 있고 영수는 앓아서 은희가 준 야채를 씹고 있다.
은희는 귀신이야기를 해준다.

은희 옛날에 이 요양원자리가 천주교 비밀집회가 있던 곳이었대요..
근데 그 집회에는 몰래 사귀던 남녀가 있었던 거예요..
둘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어느 날 그 몰래 사귀던 남자가 갑자기 집안 어른들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며 그 여자를 버려버렸대요...
그 여자는 너무너무 슬퍼서 몇 날 며칠 울다가
결국 이 앞 우물에 빠져 죽었대요..
근데 그 여자가 이 우물에 빠져 죽는 바람에 천주교 비밀집회가
발각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신한 그 남자를 비롯한 천주교 사람들이 뭉땅 머리가
잘려 죽었네요..
그 뒤부터 밤 12시만 되면 물에 불어서 통통 불은 처녀귀신 한 명과
목 없는 귀신 12명이 주기도문을 외우며 방마다 돌아다닌대요..
영수 그... 천주교 집회하고 하던 데가 여기라구요?

황재근

은희 주방 뒤에 우물 못 봤어요?
영수 ...

영수는 야채 먹는 걸 멈춘다. 은희는 영수의 눈치를 본다.

영수 나 그런 얘기 들으면 잠 못 자는 거 알아요?
은희 당연히 모르죠...
영수 도대체 나 오늘 잠 못 자면 어떻게 책임질라고 그래요?
은희 그게 내 사정인가?
영수 안돼... 나 혼자 밤 못 새..
 오늘 밤 내 방에서 같이 그 목 없는 귀신인지 뭔지
 진짜 돌아다니나 확인해요..
은희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58. 영수의 방

둘은 이불을 같이 덮고 누워있다.

은희는 영수를 쳐다본다.

은희 내가 안 보이게 해 줄까요?

영수는 멀뚱히 은희를 본다.

은희는 옆으로 누워 영수의 눈을 두 손으로 가린다.

영수 와.. 좋은데....

은희는 우는다.

눈 가리고 있던 손으로 영수의 눈과 눈썹

얼굴 여기저기를 쓰다듬는다.

은희는 영수의 눈에 가볍게 뿐뿐을

코에도 뿐만을 하고, 이마에도 한다.

영수가 윤희의 얼굴을 잡고 입

부드럽고 천천히 키스를 한다.

59. 영수의 방. 아침.

자고 있는 두 사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을 깬다.
영수 급하게 옷을 입고 살짝 창을 연다.

아저씨1 운동하러 안 나가?
영수 예... 몸이 좀 안 좋아서 쉴께요.

아저씨 가고 영수 창문을 닫는다.
영수 은희를 본다. 은희는 걱정스런 표정이다.
밖에선 은희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영수와 은희는 서로 마주보고 키득키득 웃는다.

잠시 후.
갇혀있는 두 사람.

영수 배 안 고파요?
은희 고프죠...

영수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본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오, 얼른 문을 닫는 영수.
영수는 다시 돌아와 은희의 옆에 앉는다.

은희 영수씨... 저... 우리 같이 살래요?

영수는 은희를 바라본다.

은희 결혼 안 해도 좋아요.
나 몸도 아프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영수씨 나 좋아해요?
난 영수씨 좋아해요.
나중에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때 헤어지죠 뭐.

영수는 그저 은희를 바라만 본다.
은희는 영수를 뚫어지게 쳐다본다.
영수는 은희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다.

60. 평상

영수는 평상에 눈을 감고 누워있다.
바람이 선선히 불고 사방은 조용한데
라디오에서는 음악이 나온다.
영수는 꿈을 꾸는 듯하다.
눈을 뜨는 영수.

61. 동산

영수가 풀숲을 헤치고 걷고 있다.
들판에는 꽃이 가득하다.
바람이 분다.
영수는 평지의 끝까지 뛰어간다. 숨이 찬다.
영수는 그냥 그 자리에 앉는다.
계속 그렇게 앉아 바람을 맞는다.

62. 주방 옆 수돗가

은희 야채를 다듬고 있다. 영수가 은희에게 다가간다.
영수는 은희에게 들꽃을 건넨다.
은희 고무장갑을 벗고 두 팔을 쭉 뻗어 소중하게 꽃을 받는다.
은희 눈물이 난다.
은희 꽃을 들고 뛰어간다.
영수 걱정되는 듯 은희를 쫓아가 잡는다.
은희를 안아주는 영수. 영수의 품에 안기는 은희.
산들바람에 꽃도 은희 머리도 예쁘게 흘날린다.

63. 길. 낮.

오후 햇빛을 받으며 달리는 트럭.
이삿짐이 실려 있다.

64. 트럭 안.

영수와 은희는 시원한 바람을 맞는다.
은희는 영수에게 머리를 기댄다.

65. 빈 집. 낮.

트럭 기사가 트럭을 몰고 떠난다.

트럭 기사 행복하게 사세요~

빈집의 마당에는 영수와 은희가 서 있고
단출한 짐이 들의 옆에 놓여 있다.

농촌이나 산골에 가끔 있는, 버려진 집.
하지만 살만해 보이기는 한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영수에게 묻는다.

은희 ...어때요?

영수는 그리 마음에 들지 않은 듯하다.

영수 공짜 치고는 괜찮은데...

은희 영수를 가볍게 노려본다.

은희 이럴 땐 좋다고 하는 거예요.

영수 은희의 표정을 보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간다.

영수 와! 집이다.

은희 뒤따라 들어간다.

66. 집 안

영수 방문을 열자
방에 햇살이 길게 들어온다.
햇살 속으로 묵은 먼지가 날라 다닌다.
은희가 기침을 한다.
영수가 짐을 뒤지더니 마스크를 꺼내 은희에게 써워준다.

햇살 속에 서 있는 두 사람.

67. 집. 방. 밤.

둘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있다.
둘은 달콤한 키스를 한다.

영수는 은희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영수	은희야. 넌 내가 그렇게 좋으니?
은희	응... 영수씨는?
영수	...그런 게 있긴 있구나...
은희	그런 게 있어요, 영수씨...
영수	(웃으며) 나 아프기 잘한 거 같다.
은희	나두...
	영수씨가 이렇게 안아주고 있으면 죽을 때 하나도 안 무서울 것 같아...
영수	... 은희야. 우리 꼭 건강해지자.

은희가 영수 품에 암기면 영수 은희를 꼭 알아준다.

68. 집. 아침.

은희는 벽에다 시간표를 만들어 붙인다.
시간표에는 영수의 기상시간, 운동하는 시간, 약 먹는 시간 등이 표시되어 있다.
시간표를 붙인 은희는 자고 있는 영수를 깨운다.

둘은 마주보며 약을 털어 넣는다.

69. 밭. 낮.

집 앞의 텃밭.
은희가 모종들을 심고 있다.
흙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은희.
천천히 움직이지만 땀이 계속 흐른다.
수건으로 땀을 닦는 은희.
집에서 걸어 나오는 연숙

황재근

영수는 밭가에 놓인 모종판을 들고 은희에게 간다.
은희는 모종을 심다가 영수에게 온다.

은희	하지 마.
영수	괜찮아.
은희	저기서 쉬어. 응?
영수	영수씨 부려먹기 아깝단 말야.
은희	괜찮다니까?
은희	... 나중에... 다 낫거든...

영수는 모종판을 놓고 밭 근처 나무그늘에 앉는다.
은희는 일을 하다가 영수를 돌아본다.
웃는 은희.

70. 집 안. 낮.

영수가 장을 보러간다.
은희가 준 메모지에는 사와야 될 물건들이 꼼꼼히 적혀 있다.
두부 2모, 마늘, 우유 ->(유통기한 잘 보기!!) 등등...

은희 많이 사오지 말고, 거기 써 있는 것만 사와.

은희는 마루에 서서 영수가 마당을 지나 길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보고 있다.

71. 은행 현금 인출기 앞.

명세서를 보는 영수 표정이 어둡다.
영수 지갑을 열어본다.

72. 공중전화박스

영수 동준과 통화하고 있다.

영수나 요양원 나왔어. ...어, 몸은 좋아졌어.
....그래 살림 차렸다, 어쩔래.다음에 얘기할게.
근데 이번 달에 좀 늦네. ...아~쪽팔려.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는 영수. 한숨을 쉰다.

73. 시장.

영수는 은희가 사라는 테로 하나하나 산다.
시장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고장에서 난 복분자 술을 홍보하고 있다.
영수는 가까이 가서 하나를 집어 들고 구경을 한다.

영수는 한 모금 시음도 해본다. 맛있다.. 한 모금 더 마신다...
비가 한 두 방울씩 떨어진다.

74. 산. 낮.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 은희.
빗방울이 떨어진다.
은희는 약초와 젖을 챙겨서 산을 내려간다.

75. 마당, 저녁

군데군데 물이 고인 마당을 조심조심 들어오는 영수.
마루 밑에 복분자 술을 감춘다.
영수 수돗가에서 입을 헹군다.
손을 들어 입에 대고 불어본다.

영수 유희야~

방 쪽으로 걸어가는 영수.
방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다.

76. 방 안 밤.

은희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다.
영수가 은희에게 다가간다

영수 패찰야?

은희 기침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인다.

황재근

영수 약초든 바구니와 신문지위에 널어놓은 약초들을 본다.
비에 젖어 아직까지 촉촉한 약초들...

영수 속상한 듯 은희를 쳐다보다 버럭 화를 낸다.

은희 서리운 듯 말문이 막힌다..

영수 너 애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시장에서 다 파는데.
은희 영수씨 말조심해!

은희 분한 듯 벽 구석에 쭈그리고 앉는다.

은희 영수씨, 좀 나가줄래. 나 혼자 있고 싶어.

영수는 문을 팽 닫고 나간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은희. 눈물이 난다.

77. 마당. 밤.

영수가 마당에 나가 서성인다.
은희는 거실에서 마당에 있는 영수를 본다.
속상해 하는 은희. 마당에 불을 켜준다.
서성이던 영수는 돌아서 은희를 본다.

78. 방. 밤.

나란히 누워 자고 있는 영수와 은희.
은희가 조금씩 앓는 소리를 낸다.
잡이 깨는 영수.

하지만 대답을 하는 은희의 목소리가 좋지 않다.
영수는 잡결에 손을 뻗어 은희를 어루만지다 놀라 일어난다.

은희의 이마를 짚어보는 영수.
온 몸이 불덩어리 같다.

79. 버스정류장. 밤.

버스정류장 앞에서 영수가 은희를 업고 있다.
영수는 숨을 헉헉거린다. 힘들어 보인다.
지나가는 차를 세워 보려 하지만
차들은 그냥 지나쳐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영수 은희야... 좀만 참아.. 팬찮을 거야... 팬찮아.

그 때 트럭 한 대가 멈춰 선다.

80. 병실 안. 밤.

은희가 병상에 누워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영수.
은희를 바라보다 자신도 피곤한지 꾸벅꾸벅 준다.

잠시 후.

은희의 침상에 같이 누워있는 은희와 영수.

은희가 잠을 깬다.

은희는 살짝 몸을 일으켜 잠든 영수의 얼굴을 내려다본다.

이불을 당겨 영수의 몸을 덮어주는 은희.

영수의 손을 어루만진다.

작이 깨는 영수

은희 영수씨...
영수 은희야...

웃어 보이는 은희.
연수는 익어나 자리를 비켜주려고 한다

을회 그날 있어

은희를 가만히 보더 연수는 은희의 손을 잡는다

연수 은희야 나는 넌 없으면 못 살 거 같다

미소를 짓는 은희.

81. 평상. 해질녘.

텃밭 옆의 평상.
은희와 영수가 나란히 앉아 쉬고 있다.
해가 진다.
해지는 풍경을 바라보는 영수.
산들바람이 분다.

은희는 영수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은희는 깜짝 놀라 영수를 돌아본다.
영수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는 은희.
영수는 웃는다.

노을을 배경으로 평화롭게 기대앉은 은희와 영수.

(F.O.)

1년 후.

82. 읍내 병원. 진료실. 낮.

은희가 진료를 받고 있다.
폐활량 측정기의 튜브를 입에 물고 힘껏 부는 은희.
건너편의 의사는 측정기의 숫자를 본다.
기진맥진한 은희.

83. 병원 대기실. 낮.

의자에 앉아서 영수를 기다리고 있는 은희.

황재근

영수가 진료실에서 나온다.
은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수를 바라본다.
영수는 손가락으로 오케이 사인을 만든다.
은희 웃으면서 좋아한다.

영수 너는 어떻대?
은희 (웃으며) 더 나빠지지는 않았대...

영수와 은희는 손을 잡고 병원을 나간다.

84. 돌아오는 길. 낮.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영수와 은희.

은희 영수씨... 한 번 뛰어봐.
영수 어?
은희 나 영수씨 뛰는 거 보고 싶어...

영수는 은희를 보며 씩 웃더니 저 앞으로 뛰어 간다.
다시 은희 쪽으로 되돌아오는 영수. 은희 주위를 원을 그리며 뛴다.
영수는 소리도 질러본다. 은희는 웃으면서 즐거워한다.
멀리까지 뛰어가는 영수.
은희는 영수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본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은희.
투명한 가을하늘이다.

85. 밭. 낮.

밭 근처의 나무 그늘에 잠이 든 영수.
자기 류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영수 눈을 떠보면 수연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
정신을 차리는 영수.
수연과 동준이 영수를 내려다보고 있다.

동준 팔자 늘어졌구만...

86. 부엌. 낮.

황재근

은희 부엌에서 과일을 씻고 있다.
문틈으로 마루에 앉은 영수와 수연, 동준이 보인다.
과일을 다 씻은 은희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본다.
씻은 과일을 담아 마루로 나가는 은희.

87. 마루

마루에 앉아 과일을 깎는 은희.
수연은 은희 모습을 본다.
은희도 수연의 모습을 헐끗 본다.

수연	은희씨 참 예쁘네요...
영수나 원래 예쁜 여자 좋아하잖아.
은희	(수연을 보고) 그쪽도 예쁘시네요.
수연	(영수를 보고) 참 복도 많아.

영수 웃으면 수연 같이 웃는다.
상황을 보고 있던 동준도 길낄댄다.
은희도 같이 웃는다.
웃음이 멈추면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88. 집 앞 길. 낮.

차로 내려가는 길.
영수가 수연과 동준을 배웅한다.

동준은 좀 떨어져 앞에서 걷는다.
차에 도착하면 먼저 윤전석에 탄다.

걸어가던 수연이 영수에게 말을 건넸다.

수연 (웃으며)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며? 돌아온다면?

영수는 무안한 듯 웃는다

영수 그럴 때가 있었구나...
수연 ...술은 완전히 끊었니?

고개를 끄덕이는 염수

영수 그래도 가끔 생각은 나.
수연 너 좋아 보여... 처음 봤을 때 생각난다.
영수 ...
수연 결혼은 했니?
영수 아니...
수연 ... 좋니?
영수 ... 좋아...
수연 뭐가 그렇게 좋아?
영수 다 좋아..
수연 그런 게 어딨어?
영수 ...

둘은 차에 도착한다.
차에 시동을 건 동준이 창문을 내린다.

동준 서울 한번 와라.
 너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씩 웃는 동준. 영수도 웃는다.

영수 알았어, 조심해서 가라.

수연이 차에서 봉투를 꺼내 내민다.

수연 니 전화...
영수 여기서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수연 내가 답답해서 그래...

영수는 대답하지 않는다.
다시 차에 올라타고 출발하는 수연.
영수는 선 채로 차가 가는 걸 보고 서 있다.

89. 집. 방. 낮.

방으로 들어오는 은희.
책꽂이로 가서 영수의 책을 한권 뽑는다.
책갈피의 사진을 본다.
영수와 수연이 함께 웃고 있다.

90. 방. 밤.

어두운 방.
영수의 핸드폰이 충전기에 꽂혀있고
은희와 영수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
은희는 옆으로 누운 채 눈을 감고 있다.
영수도 잠이 안 오는지 천장을 바라본다.

은희	영수씨...
영수	안 잤니?
은희	응.
영수	왜?
은희	...뭐 물어볼려고 했는데 ... 까먹었다.
영수	(웃으며) 자자.

91. 마루, 밤,

방문을 조심스레 열고 나오는 영수.
마루에 앉는다.
마당엔 비가 내린다.

92. 요양원, 낮,

영수가 운전기사 아저씨를 도와서 요양원 봉고차에서 야채를 내리고 있다.
요양원 원장 아줌마가 옆에 있다가 영수에게 돈을 건네준다.

아줌마	잘 살지?
영수	예...
아줌마	은희씨 건강은 어때?
영수	많이 좋아졌어요...
아줌마	...한 번 데리고 와. 어? 얼굴 까먹겠네.
영수	예. 그럴게요.

영수 받은 돈을 세어 본다. 얼마 되지 않는다.

93. 가게 앞

요양원 입구 가게.

기사 아저씨가 평상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다.

영수 씻고 나와 평상에 앉는다.

맥주를 한잔 권하는 아저씨.

영수 약간 망설이다 한잔 쭉 들이킨다.

기사 아저씨 담배 두 개비를 꺼내 영수에게

한대 준다. 맛있게 담배를 피우는 기사 아저씨.

영수 담배에 불을 붙인다.

홍자서 피식 우는 영수

영수 아저씨 나 술하고 담배 정말 어렵게 끊었는데...

아저씨 웃으며 영수의 잔에 맥주를 한잔 더 따라준다.

아저씨 몸에 좋은데 재미가 없지?

영수와 아저씨 낄낄댄다.

94. 욕실, 낮.

영수는 은희가 머리맡는 것을 도와주고 있다.

은희의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영수.

영수 ... 나 서울에 한번 다녀올까봐...

은희 맞어. 집에 한번 가보고 싶겠다.

은희 정말?

영수 ...
수고 ...

85 二十九

연수기 예술 8 등 8 주제 연습본

양자 척도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는 페어링은 양자 측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수는 치하의 세례당

경우는 금회가 새립나.
경우에 비하니 되어 뒤에서 보면 유험과 연수로 보고 있다

전체 환경

은희	그래.
영수	... 요양원 한 번 갔다 올래?
은희	왜?
영수	그냥.. 가보고 싶지 않아?
은희	나중에 같이 가지 뭐...
영수	그래... 그러자.

96. 마루. 낫.

은희는 멀어지는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서 있다.

97. 기차 안. 낮.

서울의 풍경이 보인다.
창밖을 보는 영수.

98. 클럽, 낫,

영수는 동준과 커피를 마시고 있다.

동준	올라오긴 올라 올 거야?
영수	생각 중이야...
동준	난 너랑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잘할 수 있을 거 같아.
영수	알았어.
동준	누구냐... 그... 은희? 개랑 같이 올라 올 거냐?
영수	...야, 개가 뭐냐? 말조심해.
동준	어쨌든.
영수	...은희는 서울 못 와.
	요양원에 있을 애 테려다 놓구 사는 건데...

잠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영수

...

99. 수연의 아파트 앞 복도. 낮.

수연의 집 쪽으로 걸어오는 영수. 이 때, 아파트 문이 열리고 수연이 나온다.

수연 (영수를 보고) 어? 벌써 왔어?

영수 어...

수연 전화라도 하지... 지금 저녁 할려고 장보러 가는 길인데...

영수 같아 같까?

수연 아냐, 집에서 쉬고 있어. 혼자 갔다 올게.

영수 같이 가지, 뭐...

영수와 수연은 다시 현관문으로 가서 문을 열고

영수의 가방을 집 안에 들여 놓는다. 장을 보러 가는 두 사람.

100. 아파트 앞 대형마트. 낮.

영수와 수연은 카트를 끌고 장을 보고 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친한 친구처럼 보인다.

101. 수연의 집. 마루. 저녁.

식탁에 놓인 커다란 회 접시.

그 주위로도 먹음직스런 음식들이 푸짐하게 놓여있다.

영수는 회를 쌈에 싸서 맛있게 먹고 있다.

수연은 자신의 앞에 놓인 소주를 맛있게 들이킨다.

영수는 콜라를 마신다.

영수 맛있다.

수연 너 원래 회 좋아하잖아...

영수 ... 그러게...

영수는 수연을 잠시 본다.

영수 ... 너 많이 변했다.

수연 그러는 너는?

지금 두 봄, 전엔 언제 한번이라도 술 마다한적 있어?

황재근

영수 ...
수연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서 살 거야?

잠시 영수 대답이 없다.

영수 수연아. 개 나 많이 좋아해.
 너랑은 틀려.
수연 (웃으며) 나도 너 좋아해.
 나, 너 보고 싶었다.
 넌 나 안보고 싶었니?

영수는 대답을 하지 않는다.

수연 ...걔가 그렇게 잘해줘?

수연 술이 좀 취했는지 눈물을 보인다.

영수 수연의 우는 모습을 본다.
영수 일어나 수연의 옆자리에 앉는다.

수연 나보고 기다리랬잖아...

수연을 안아주는 영수.

102. 수연의 방. 아침.

영수 눈을 뜬다.
수연이 물끄러미 영수를 바라보고 있다.

수연 잘 잤어? 나 늦었거든...
 밥 차려 놨으니까 일어나면 밥 먹구,
 전화해.

수연 영수에게 가볍게 키스하고 방을 나간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영수
이불을 뒤집어쓴다.

103. 수연 집. 거실.

팬티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어머니와 통화를 하고 있는 영수.

영수 아직 외국인데요... 곧 들어갈 거예요... 네...

전화를 끊고 TV를 보는 영수.
이리저리 채널을 돌려본다.

104. 나이트클럽. 밤.

스테이지를 바라보고 있는 영수.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다.
동준과 수연의 모습도 보인다.
그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영수.
음악에 맞춰 고개를 흔들어보는 영수.

잠시 후 영수는 스테이지로 걸어 들어가 능숙하게 춤을 춘다.

105. 시골집. 방. 밤.

전화를 하고 있는 은희.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긴다.

은희 잠시 고민하다 메시지를 지운다.
다시 메시지를 놓을하는 은희.

전화를 끊는 은희.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깜빡한다.
멍하니 형광등을 올려다보는 은희.

106. 방. 낫.

의자에 올라가 천장의 형광등을 갈고 있는 은희.
끌이 잘 맞지 않아 한 번에 끼우지 못한다.
이리저리 가늠해보다가 형광등을 떨어뜨리는 은희.
형광등을 놓치지 않으려다가 자기도 같이 떨어진다.
형광등이 깨지면서 손을 베는 은희.

107. 마당. 낮.

손을 봉대로 감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은희.
자꾸만 집으로 올라오는 길에 시선이 간다.
화분의 물이 넘친다.

108. 집, 마루, 밤,

툇마루에 서서 마당을 내다보는 은희. 깜깜하고 아무도 없다.
마당에 불을 켜는 은희. 툇마루에 쪼그리고 앉아서 마당을 바라본다.

109. 집, 마당, 아침.

마당에 불이 켜져 있다.
은희가 밤에서 마루로 나와서 불을 끄고 다시 들어간다.

110. 수연의 아파트, 방, 아침.

침대에서 자고 있는 영수와 수연.
영수의 핸드폰 전화벨이 울린다.
잠에서 깨어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영수.
영수 전화를 받지 않는다.
수연 전화벨에 잠을 깨다.

수연 계속 아 빨을 거야?

영수 이불을 뒤집어쓴다.

영수 나도 모르겠다. 니가 받아서 나 그냥 죽었다고 해.

수연, 한심한 듯 영수를 바라본다.

수연 그려지 말고 가서 얘기해.

영수 ...

수연 술 먹고 얘기하던가... 너 그런 짓 잘 하잖아...

영수, 어이없다는 듯 수연을 본다.

수연 너... 갈까 말까 고민하잖아.

고민한다는 건 너두 아는 거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영수 ...너 회사 늦었다.

수연 애가 시골에 살더니 요일 감각이 없어졌어.

오늘 일요일이잖아...

111. 터널, 버스 안, 밤.

버스를 타고 가는 영수.

버스가 터널을 지난다.

터널의 조명들이 영수의 얼굴 위로 지난다.

영수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명하니 보고 있다.

영수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한다.

112. 터미널

은희가 깜깜한 밤에 터미널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다.

영수가 버스에서 내린다.

은희는 빠른 걸음으로 영수에게 다가간다.

영수의 얼굴을 만져보는 은희.

은희 못 생겨졌어...

은희는 영수의 품에 안긴다.

영수는 표정이 착잡하다.

은희에게 뭔가를 건네는 영수.

영수 비싼 거야...

은희 선물을 뜯어본다.

머리핀 하나가 나온다.

113. 택시 안. 밤.

택시를 타고 가는 영수와 은희.
은희는 영수의 어깨에 기대서 졸고 있다.
은희의 머리에는 영수가 선물한 머리핀이 꽂혀있다.
영수는 그냥 앞을 보고 있다.

114. 방. 아침.

영수가 자고 있다.
은희가 일어나 영수의 옷가지들을 살펴본다.
주머니에서 영수의 전화를 꺼내 밖으로 나간다.

115. 마루. 아침.

- 전화기는 꺼져있다.
- 전화기를 켜보는 은희.
- 통화기록과 메시지들을 확인한다.

영수 은희에게 다가와 핸드폰을 뺏는다.

은희를 쳐다보는 영수.
은희는 가만히 있다가 밖으로 나간다.

116. 밭. 낮.

은희가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다.
힘이 드는지 중간에 쉬는 은희.
한숨을 쉰다.

117. 마루. 저녁.

식사하는 영수와 은희.
영수의 핸드폰이 울린다.
번호를 보는 영수.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는다.
혼자 남은 은희. 방 쪽을 바라본다.
금방 나오는 영수.
다시 밥상 앞에 앉는다.

영수	일 때문에...
은희	일... 얻었어?
영수	같이하자구 난리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은희	... 여기서 농사짓는 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면 안 돼?
영수	... 그건 아플 때 얘기구. 건강한데 뭐라도 해야지.
은희	...
영수	언제까지 이러구 살 꺼야?
은희	이게 왜. 난 좋기만 한데. 너무...
영수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되면 벌어야지.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야지.
은희	난 지금이 좋아...
영수	나두 지금은 좋은데... 지금 좋다고 나중에도 좋으란 법 있냐?
은희	난 나중 같은 거 몰라.
영수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은희	...
영수	...

밥을 먹는 은희를 바라보던 영수, 갑자기 화를 낸다.

영수 년 왜 그렇게 밥을 늦게 먹나?

은희는 밥을 먹다 말고 영수를 올려다본다.

영수 너 밥 먹는 거 쳐다보는 것도 지겹다.
 년 안 지겹니?

영수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다.

혼자 남은 은희.
눈물이 흥 돈다.

118. 방. 밤.

잠을 자고 있는 은희와 영수.
잠결에 영수를 안는 은희.
잠이 깨는 영수.
자신에게 올려진 은희의 손을 내려놓는다.
잠든 은희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는 영수.
은희의 머리칼을 만져본다.
영수 한숨을 쉰다.

119. 방. 낮.

늦잠을 잔 영수, 눈을 뜬다.
은희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다.
그런 은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영수.

은희는 대답이 없다.

영수	... 미안하다.
은희	... 영수씨 나 사랑해?
영수	... 응
은희	아니면 얘기해 줘.
영수	... 은희야.
은희	왜?
영수	우리 놀러 가자.

120. 바닷가의 식당. 낮.

바닷가의 식당에서 회를 먹고 있는 영수와 은희.
영수는 자기가 좋아하는 회를 먹으면서도 별로 말이 없다.
은희가 손을 들어 식당 아저씨를 부른다.
소주를 한 병 시킨다.

황재근

은희를 보는 영수.

아저씨가 술을 가져온다.
영수에게 술을 따르는 은희.

은희 나도 한 잔 마실까?

영수는 은희에게 술을 따라준다.
은희는 한 번에 잔을 비운다.
술맛을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는 은희.

은희 한 잔 더 주세요.

온희에게 술을 따라주는 영수.
다시 잔을 비우는 온희,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은희를 바라보는 영수.

121. 바닷가 유원지. 낮.

흔자서 바이킹을 타는 영수.
점점 커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속에서 영수도 고함을 지른다.

밑에서 은희가 영수를 보고 있다.
웃으면서 영수에게 손을 흔든다.

122. 요양원, 부엌, 낮,

창가의 화분을 살펴보는 원장 아줌마와 은희.
은희는 기다랗게 자란 녕쿨을 두 손으로 받치고 골고루 물을 주고 있다.

은희 진짜 많이 컸다.
아줌마 그렇지? 그럼 이제 화분을 바꿔줘야 되나?
은희 아뇨... 아직은 괜찮은 거 같아요...

은희는 다른 화분에 물을 준다.

은희 애는 작년에 꽃 뺐어요?
아줌마 아니... 물도 잘 주고 했는데 꽃이 안 피대...
은희 애는 시원해야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잘 드는데 나둬야 돼요...

은희는 화분을 창가의 바람이 잘 닿는 자리로 옮긴다.

아줌마 은희씨 오니까 좋네...
은희 ... 저 다시 올까요?
아줌마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마...

123. 동산, 낮.

은희는 들꽃이 가득한 벚판을 걷는다.
들꽃을 캐어 꽃다발을 만들어 보는 은희.

124. 시장, 낮.

시장을 돌아다니며 두부며 파 같은 것들을 사던 영수.
전화가 온다. 수연이다.

전화를 끊는 영수.

125. 읍내 길거리. 양주집 앞. 낮.

술이 취한 영수. 비틀거리며 양주집 앞을 지난다.
되돌아와서 양주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

126. 빈 집. 밤.

꽃병에 들꽃이 꽂혀있다.

잠시 꽃을 바라보던 은희 가계부 정리를 한다.

전화벨이 울린다.

전화를 받는 은희.

127. 파출소 앞. 밤.

택시에서 내려 파출소로 들어가는 은희.

128. 파출소 안. 밤.

파출소에 들어온 은희.

파출소 안을 둘러본다.

영수가 파출소 의자에 쭈그려 누워 있다.

옆에 있는 술집여자에게 돈을 주는 은희.

129. 택시 안. 밤.

영수는 은희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다.

은희가 영수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영수의 머리칼을 만져보는 은희

130. 집. 밤.

영수를 휘겹게 부축해서 들어오는 은희.

영수의 양말을 벗기다

영수 눈을 뜯다

영수 술 더 없냐?

은희는 영수를 바라본다

영수 죽고 싶나니.. 누가 살려준 목숨인데....

은희는 안타깝게 영수를 바라본다.

영수는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천장을 본다.

은희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는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영수 니가 좀 떠나줘.
난 그런 얘기 절대 못해.
너 나 알잖아...

영수는 누운 상태에서 계속 술주정을 한다.

은희는 참아보려 하지만 눈물이 흐른다.

131. 집. 마루. 아침.

마루로 나오는 영수.

마루를 둘러본다.

어젯밤 자신의 행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마루.

은희는 그 구석에서 이불만 덮고 자고 있다.

영수가 은희를 뒤에서 안아준다.

눈을 감고 있는 은희.

132. 집, 마루, 오전,

마루가 다 치워져 있다.

아침상을 차리는 은희.

상을 다 차리고 나서, 은희는 일어난다.

은희 나 좀 나갔다 올게...

영수는 일어나는 은희를 잡지 못한다.

133. 길, 낮.

시골길을 은희가 걷고 있다.
걷던 은희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다.
숨이 점점 차오른다.
계속 달리는 은희 숨이 몇을 것 같다.
푹 쓰러지는 은희.
점차 숨이 돌아온다.

134. 집으로 오는 길, 낮.

은희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침착해 보인다.

135. 집. 낮.

마루로 들어서는 은희.
영수가 설거지를 하고 있다.

은희
영수씨.
영수
웅

영수는 은희를 돌아본다.
그리고 설거지를 계속한다

은희	나가줘.
영수	...
은희	이 집에서 나가.
영수	...
은희	영수씨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영수씨가 좀 떠나줘.

영수가 돌아서서 은희를 본다.

은희	나 영수씨 만나기 전에 행복하게 살았어... 만나고 나서 좋았지만 이제 싫어..
영수	은희야.
은희	...
영수	미안하다니까. 내가 잘못했어.
은희	아냐.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영수	은희야.

대답을 하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는 은희.
눈을 감은 채로 말한다.

은희 나가줘. 영수씨. 부탁이야.

136. 밤.

짐을 싸고 있는 영수.

137. 마루.

영수가 짐을 들고 나온다.
영수는 은희를 쳐다본다.

영수 나 간다.

은희는 염수 쪽을 보고 있지 않다.

영수 연락할게.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는 은희.
대답하지 않는다.

영수가 신발을 신고 점을 떠난다.

작시 후

은희가 울기 시작한다.
참으려고 하지만 자꾸만 울음이 새어나와서
결국 은희는 엉엉 울게 된다.

138. 집 앞. 낮.

침을 들고 걸어가는 영수.
걸어가는데 은희가 우는 소리가 들린다.
영수는 계속 걸어간다.
은희의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점점 빨리 걷는 영수.
영수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F.O.)

139. 나이트 룸 안.

(F.I.)

영수가 마이크를 잡고 악을 쓰며 노래하고 있다.
웨이터가 한 여자의 손을 잡고 들어온다.
여자, 영수의 얼굴을 빤히 보다가

영수는 잘 모르겠다.
미영이다.

미영 한 3년 됐나... 나랑 약속까지 했잖아요?

그제야 반가워하는 영수.

140. 나이트 앞, 밤.

한 짚은 남자와 멱살을 잡고 있는 영수.
영수는 많이 취했다.
미영은 창피한 듯 멀찌감치 떨어져 서있

남자에게 밀리는 영수.

영수 년 빠져...

남자를 확 밀치는 영수.
하지만 오히려 남자가 영수를 뿌리친다.
화단의 나무에 걸려 넘어지는 영수.
일어나려다 그냥 퍼져 누워버리는 영수.

141. 수연의 새 집. 새벽.

영수가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다.
30평대의 아파트.
수연과 영수가 찍은 사진이 오디오 위에 올려져 있다.
수연이 들어온다.
수연도 술이 좀 취했다.
영수 옆에 털썩 앉는다.

수연 너 오늘 재밌었니?
영수 어... 재밌었어...
수연 아까 우리 쪽으로 넘어오지..
 오늘 진짜 재밌었던 거 알어?
영수 나두 진짜 재밌었는데...
수연 재미없었던 거 같은데?
영수 재밌었다니까..
수연 에이.. 재미없었으면서...

잠시 대답이 없는 영수.

영수 야! 넌 이렇게 사는 게 재밌냐?

잠시 영수를 보는 수연.

수연 아니.

수연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옷을 벗으며 방으로 들어간다.
영수는 혼자남아 TV를 본다.

142. 화장실. 아침.

영수는 욕실에서 양치질을 한다.

황재근

헛구역질이 나서 웨웨거린다. 눈물이 나온다.
영수는 거울을 본다.
자기의 모습을 한참 쳐다보는 영수.

143. 수연의 집. 아침

트렁크를 열고 자신의 짐을 담기 시작하는 영수.

144. 고속도로.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는 영수.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다.

145. 요양원 사무실. 낮.

사무실에 앉아있는 영수.
주위를 둘러본다.
벽의 도표를 본다. 요양원에는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있다.
원장 아줌마가 들어온다.
아줌마 영수를 잠시 쳐다본다.
수납장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 영수에게 건네주는 아줌마.
은희의 가방이다.

영수 은희는요?
아줌마 ... 죽어서 산에다 뿌렸어...

146. 동산 낫

은희의 가방을 들고 천천히 들판을 걸어가는 영수.
잠시 멈춰서는 영수.
바람이 분다.
꽃잎이 날린다.

147. 빙 집 날.

텅 빙 집.

황재근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듯하다.
바닥엔 거울이 깨져있고 여기저기 먼지가 잔뜩 끼어있다.
빈 집을 둘러보는 영수.

마루에 기대어 앓는 영수.
가방을 열어보는 영수.
가방 안에는 가계부, 석구 아저씨의 라디오,
커플 인형 같은 은희의 물건들이 들어있다.
물건 중에는 영수가 은희에게 선물했던 머리핀도 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148. 도로. 낫.

영수가 운전하고 있는 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터널의 조명들이 영수의 얼굴 위로 지나간다.

터널을 벗어난다.
영수는 수연에게 전화를 한다.

영수, 눈물을 참으며

영수 우리... 잘 살아보자... 행복하게...

- 三 -